

어휘부의 조직

김 영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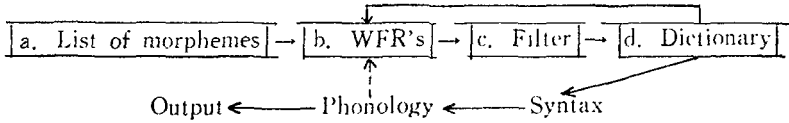
생성문법의 발전과정은 무엇보다도 어휘부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다듬어나간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문법이론의 변천이 어휘목록(lexicon) 자체에 대한 고려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말이 아니다. 사실은 그 반대로 문법의 타 부분의 조직에 일어난 변화는 어휘목록의 조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어휘목록이 단순한 어휘형식소(lexical formative)의 일람표에 불과했던 반면에 오늘날의 그것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Chomsky는 *Aspects*(1965)에 이르러 어휘목록을 바꿔쓰기 규칙(rewriting rule)으로부터 분리하기는 하였지만(cf. Chomsky 1957), 이 체계 속에서 어휘목록 안에 존재하는 항목은 단일어(simple word) 뿐이며, 합성어나 파생어와 같은 복합어(complex word)들을 Lees(1960)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변형 규칙에 의해 형성되어야 했다.

형태론(morphology)이 마침내 생성문법 안에 독립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Chomsky가 *Remarks on Nominalization*(1970)에서 제창한 어휘론적 가설(lexicalist hypothesis)에 근거를 두고 있다. Chomsky의 제안은 기저부(base component)에 보다 풍부한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변형부의 과도한 힘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처럼 변형부로부터 힘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단어 형성규칙(word formation rule, WFR)을 포함하는 어휘부와 함께 이른바 \bar{X} 이론이라고 불리는 보다 풍부한 구 구조 규칙(PS rule)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최초로 형태부(morphological component)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등한히 되어온 형태론이라는 분야에 대한 논의를 자극한 것은 Halle(1973)이었다. 그의 모델과 각 하위성분(a~d)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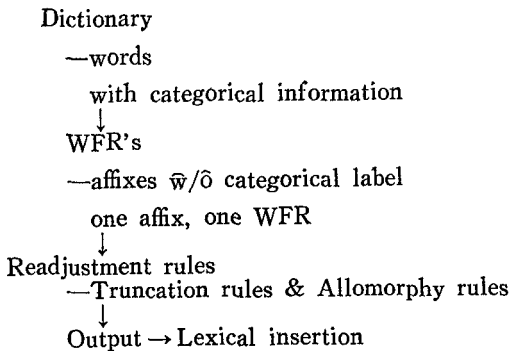
(1) Halle(1973)의 모델 :



- 문제점 : a. 기본단위는 형태소(morpheme)인가, 단어(word)인가?
 b. 제약의 필요 : (i) 사전은 실제로 WFR의 입력부와 출력부에 대해 일종의 전구조건(global condition)의 구실을 하고, (ii) 비문법적인 형태를 과도하게 생성한다.
 c. 가능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단어의 수는 유한(finite)하지 않다.
 d. 사전과 형태소 목록은 체계에 잉여적 요소를 남긴다.

그후 생성형태론은 Aronoff(1976)에 의해 이론의 체계가 더욱 단단하게 다져졌다. 그는 단어 어기 가설(Word Based Hypothesis)에 입각하여 형태 규칙, 즉 WFR을 세련되게 하는 방법과 그 힘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약을 시사하고 마지막으로 WFR의 출력부를 재조정하는 일련의 규칙들을 제안한다.

(2) Aronoff(1976)의 모델 :



단어 어기 가설 :

모든 규칙적인 단어 형성은 단어를 어기로 한다. 새로운 단어는 단일한 기존의 단어에 규칙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만든다. 새로운 단어와 실제하는 단어는 모두 대어휘법주에 속한다.

그러나 기본단위의 문제 외에도, 한 언어에는 그 안에 존재하는 접사의 수효만큼의 WFR이 필요하다는 Aronoff의 주장은 문법의 간결성이란 측면에서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의문은 그 후 통사이론의 발전과 함께

Selkirk(1982)의 단어 구조 규칙(word structure rules)에 이어 Lieber(1980)의 통합이론을 낳게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굴절(inflexion)의 처리를 둘러싼 몇 가지 다른 견해들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문법 안에서의 굴절의 위치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굴절을 전적으로 어휘부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굴절을 통사부나 그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은 파생과 굴절을 본질적으로 같은 유형의 과정으로 보느냐(e.g., Halle 1973; Jackendoff 1975; Lieber 1980; Williams 1981) 아니면 서로 다른 과정으로 보느냐(e.g., Selkirk 1982; Kiparsky 1982; Scalise 1984)에 따라 다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도 굴절이 통사적 적용이라는 주장(e.g., Chomsky 1970; Siegel 1974; Aronoff 1976)과 그것이 음운적인 작용이라는 주장(e.g., Anderson 1982 cf. Matthews 1974)으로 나눌 수 있다.

Selkirk(1982)는 “모든 W-통사범주는 그것이 단어이든 단어보다 낮은 것이든간에 \bar{X} 계층 안에 들어 있다”는 가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하위성분으로 구성된 형태부를 제안한다.

(3) a. 단어 구조 규칙(Word structure rules)

파생(derivation) : $X^n \rightarrow Y^n X^{af}$

$n = \text{Word or Root}$

굴절(inflexion) : $N \rightarrow N \begin{bmatrix} Af \\ m \text{ gen} \\ m \text{ plur} \end{bmatrix} \begin{bmatrix} Af \\ m \text{ case} \end{bmatrix}$

where $m = +, -, \text{ or an integer}$

b. 확대 사전(Extended dictionary)—어휘항목(free/bound)의 목록

c. (형태)어휘 삽입변형 규칙(Morpholexical insertion transformation)

위의 모델이 기본적으로 *Aspects*를 따른 것이라면, 보다 최근에 GB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은 Lieber(1980)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통합 이론은 파생과 굴절을 다같이 어휘부 안에서 처리하되, 단일한 무환경 다시쓰기 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분지 수형구조($\wedge, \wedge, \wedge, \wedge$)에 하위범주화(subcategorization) 제약에 따라 어휘삽입을 하고나서 포찰달기(labeling)는 자질 삼출 규약(Feature Percolation Conventions)에 맡기고 있다.

(4) Lieber(1980)의 모델 :

Permanent Lexicon

(including morpholexical rules)

Lexical Structure Component

lexical structure rewrite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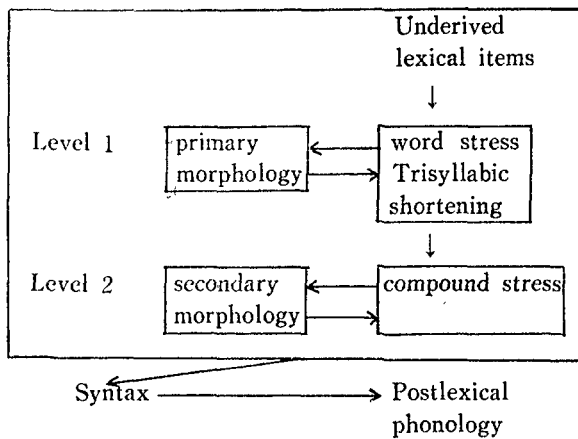
Feature Percolation Conventions

String Dependent Rules

(reduplication, infixing, umlaut, etc.)

한편 영어에 두 가지 부류의 파생접사(Class I/Class II)가 있음을 인식한 Siegel(1974)에 의하여 생성문법 안에 처음 도입된 층위 유순 형태론(level-ordered morphology)는 Pesetsky(1979)를 거쳐 Mohanan(1982), Kiparsky(1982, 1983, 1985), Halle & Mohanan(1985), Pubach(1984) 등의 어휘 음운론(lexical phonology)으로 발전하여 어휘부의 조직에 대한 관심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5) Kiparsky(1983)의 모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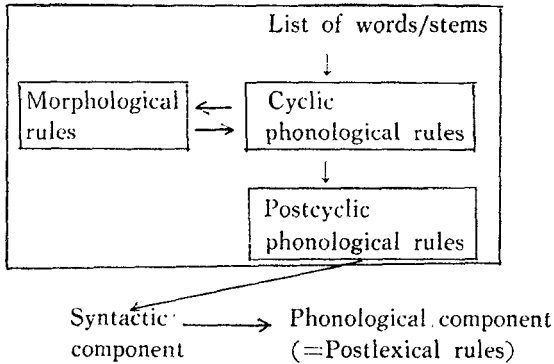


영어의 어휘부를 재구성한 위의 도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층위의 구분은 1차(+경계) 접사는 항상 2차(#경계) 접사보다 어간에 보다 가까이에 놓여진다는 일반성을 포착한다. 그리고 접사의 순서와 음운론 사이의 상호관계는 음운규칙 자체를 어휘부 안에서 단어의 형태적 도출의 각 단계가 지날 적마다 해당 층위에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이 체계에서는 또한 괄호 소거 규약(Bracketing Erasure Convention)에 따라 형태 및 음운 과정은 선행 층위로부터의 내부구조를 볼 수 없으며, 특히 어휘부가 끝난

다음에는 단어 내부의 모든 발호가 지워지게 되므로 통사규칙은 단어의 내부구조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는 어휘론적 가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다.

이 이론은 SPE 이후 규칙의 적용 방식에 대한 한 가지 해결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 있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어느 특정 언어에서 필요한 층위의 수효가 분석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면, 그것이 안고 있는 이론상의 결함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Rubach(1984)와 Booij & Rubach(1987)의 제안은 주목할 만하다.

(6) Rubach(1984), Booij & Rubach(1987)의 모델 :



이들은 어휘부 규칙을 순환규칙(cyclic rule)과 후환규칙(postcyclic rule)으로 구분한다는 면에서 이 이론을 세련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였다. 순환규칙은 형태규칙과 서로 작용하는데 반하여, 후어휘부 규칙은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휘음운론은 이 밖에도 음운규칙들을 단일 구획 속에 묶고서 각 규칙마다 그 적용 영역을 명시하자는 Mohanan(1982), Halle & Mohanan(1985) 등의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규칙의 적용 단계는 엄밀 순환 조건(Strict Cycle Condition), 구조보전(Structure Preservation) 따위의 일반 원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자는 Kiparsky(1985) 등의 주장까지 대두되어 이론의 추이가 자못 궁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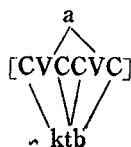
끝으로 그동안 논란만 거듭했을 뿐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던 비연쇄형태론(nonconcatenative morphology)에 관하여는 McCarthy(1979, 1981)의 운율 이론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다음은 아랍어 *kattab* 'cause to write'의 분석 결과를 보인 것이다.

(7) McCarthy(1979, 1981)의 모델 :

*Morphology*inflectional
morphemederivational
skeletal morpheme

root

*Prosody*vocalic
melody tier

prosodic template

consonantal
melody tier

- 기본장치 : 1. 전형(canonical pattern)과 분절음은 각각 CV 골격(skeleton)과 음소 가락(phonemic melody)으로 분리하여 나타낸다.
2. 등시적인 층렬(tier)은 자립분절 연결규약에 의하여 이어진다.
3. 다른 형태소는 다른 층렬에 놓일 수 있다.
- a) 형태소는 단속적(discontinuous)일 수 있다.
- b) 형태소는 분절음보다 적은 것일 수 있다.

지면 관계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실제로 McCarthy의 모델은 형태소가 선형적으로 표시되지 않고 별개의 층렬에 놓이며, 이것들이 자율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의 원리에 의해 배열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전형적인 항목과 배열(Item & Arrangement)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곧 이어 음운표시란 측면에서 현대 음운론에 미친 영향도 지대하였지만, 자연언어에서의 중첩(reduplication) 현상과 에코우어(echo word), 형태적 변이(morphological mutation), 음성상징(sound symbolism) 등 여러 특이한 현상에 대하여도 새로운 관점을 불러 일으켰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S.R. (1982) 'Where'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3.
- Aronoff, M. (1976) *Word Formation in Generative Grammar*, The MIT Press.
- Booij, G.E. & J. Rubach (1987) 'Postcyclic versus Postlexical Rules in Lexical Rules in Lexical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18.
- Ch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Mouton, The Hague.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 Chomsky, N. (1970) 'Remarks on Nominalization', in A. Jacobs & R.S.

- Rosenbaum eds.,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82)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 Hall, M. (1973) 'Prolegomena to a Theory of Word Formation', *Linguistic Inquiry* 4.
- Hall, M. & K.P. Mohanan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6.
- Jackendoff, R. (1975) 'Morphological and Semantic Regularities in the Lexicon', *Language* 51.
- Kim, Y.S. (1988) 'Ideophones in Korean',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2, Hanshin, Seoul.
- Kiparsky, P. (1982)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Hanshin.
- Kiparsky, P. (1983) 'Word-formation and the Lexicon', in F. Ingemann ed., *Proceedings of 1982 Mid-American Linguistics Conference*.
- Kiparsky, P. (1985) 'Some Consequences of Lexical Phonology', *Phonology Yearbook* 2.
- Lees, R.B. (1960)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 Mouton, The Hague.
- Lieber, R. (1980)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Ph.D. dissertation, MIT.
- Matthews, P.H. (1974)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rthy, J. (1979) *Formal Problems in Semitic Phonology and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 McCarthy, J. (1981) 'A Prosodic Theory of Nonconcatenative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2.
- Mohanan, K.P. (1982) *Lexic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MIT.
- Pesetsky, D. (1979) 'Russian Morphology and Lexical Theory', unpublished manuscript, MIT.
- Rubach, J. (1984) *Cyclic and Lexical Phonology: The Structure of Polish*,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 Scalise, S. (1984) *Generative Morphology*, Foris Publications, Dordrecht.
- Selkirk, E. (1982) *The Syntax of Words*, The MIT Press.
- Siegel, D. (1974) *Topics in English Morphology*, Ph.D. dissertation, MIT.

Williams, E. (1981) 'On the Notions 'Lexically Related' and 'Head of a Word'', *Linguistic Inquiry* 12.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Young Suk Kim

This is a short survey of morphology in the generative paradigm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ganization of the lexicon. First we will outline the Lexicalist Hypothesis that made possible the return of morphology. We will then discuss in brief a variety of different proposals for word formation advanced in the lexicalist framework, in particular, those of Halle(1973), Aronoff(1976), Lieber(1980), Selkirk(1982), Kiparsky(1983, 1985), Rubach (1984), McCarthy(1979, 1981), etc. Today morphology is a field characterized by much on-going research. We have thus seen, in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several other theories, as well as a number of empirical studies. Not all of these are important enough to merit a special discussion, however.

110-74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3-53

성균관대학교 영문과